

'통속극은 가라' 지상파 스릴러·수사물, 안방 사로잡다



통속극과 로맨스 일색이었던 브라운관이 변하고 있다. 지상파들은 저마다 트렌디한 장르물을 무기 삼아 드라마 집선에 나서는 중이다. 확실한 색깔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지상파를 이탈한 젊은 세대를 다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전파를 탄 코미디 수사극 '열혈사제'(SBS)가 대표적이다. 불의를 보면 즉각 응징해야 분

트렌디한 장르물 대거 선보이며 시청자 모아

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통속극처럼 쉽고 재밌게 풀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 시간 내내 코믹한 장면들이 간단없이 이어지는데, 반응이 좋다. 최근 지상파 드라마 고전을 비웃듯 첫 회부터 10%(닐스코리아)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지난 8일 방송된 14회에서는 17.7%를 나타내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같은 방송사의 '빅이슈'는 일종의 케이퍼(범죄) 무비 같은 분위기로, 강렬한 액션과 파격적 연출을 위해 지난 6일 방송된 1, 2회를 '19금(禁)'으로 내보냈다. 휴리스틱로 전락한 전직 민간기자 한석주(주진모)와 그를 파파라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편집장 지수현(한예솔)의 얘기를 다뤘다. 다른 지상파 채널들도 갖고있는 장르물들을 내보냈다. 오는 20일 엘리트 의사가 교도소의 의료과장이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물 '닥터 프리즈너'(KBS2)가 시청자들을 만난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물건들에 초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독특한 설정을 지닌 미스터리물 '하이텔'(MBC)도 지난달 11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장르물이 일반 통속극을 제치고 지상파 드라마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채널 분화로 치열해진 드라마 시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진 드라마평론가는 "장르물은 미스터리, 추적, 범죄 등 확실한 콘셉트를 잡고 간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며 "케이블로 이탈한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지상파에서 장르물이 재평가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강렬한 색깔을 지닌 장르물은 중장년층보다는 젊은이들을 끌

리고 영화적 호응을 즐기는 2049세대가 선호한다. 케이블은 이런 종류의 작품을 꾸준히 편성해 젊은 세대를 정조준해왔다. 장르물 대중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2016)도 tvN에서 전파를 댔다. 해당 채널의 장르물 계보를 잇는 이준호 유재명 주연의 법정수사물 '자백'도 오는 2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웹메이드 장르물을 만들어왔던 OCN은 최근 하드보일드 추적 스릴러 '트랩'을 내보이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지상파와 케이블은 젊은 시청자를 두고 장르물로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윤 평론가는 "지상파 드라마의 침체외도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이 다루는 소재나 장르적인 특성뿐 아니라, 드라마 전체의 길이나 영상미 등에서도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는 게 지상파가 젊은 시청자들에게 다시 어필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악질경찰', 캐릭터·열연·연출 놓치면 안 될 관전포인트



캐릭터들과는 굵이 다른 악질 경찰이다. 자신 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던 그는 요원의 경찰 압수창고 폭발사건으로 한순간에 용의자로 전락한 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가진 미나를 쫓다 더 큰 악을 마주하며 점차 변화가 시작한다. "조필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이선균의 말

미나를 쫓는 또 한 명의 인물 태주는 등장만으로 주변의 공기를 살얼음판으로 만든다. 태성그룹 정이향 회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든 서슴지 않는 태주의 모습은 관객들이 상상해오던 악의 범주를 뛰어넘는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감정 없이, 즐기듯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힐 수 있을까 스스로도 태주가 무섭게 느껴졌다"는 박해준의 말처럼 권태주는 스크린에 새로운 악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 이선균·전소니·박해준, 혼신 다한 열연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열연 또한

배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촬영 두 달 전부터 체력관리와 액션 연습에 매진한 이선균은 영화 속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대역을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액션신을 소화했다. 또 필화의 감정을 따라 관객들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며 폭발하는 필화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연기했다. 전소니는 신인답지 않은 용기와 자신감으로 현장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특히 생애 첫 외어 액션씬에서 조차 겁을 내지 않고 당차게 연기에 임하는 모습에 스태프 모두가 놀랐다. 이선균 감독은 전소니에 대해 "카리스마도 있고 당돌함도 있지만, 굉장히 현명하고 속도 길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해준 또한 절정에 다다른 몰입

도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권태주와 혼연일체 된 박해준은 귀에 멍이 든 것도 모른 채 액션 촬영을 이어나갈 정도로 촬영 내내 태주 역할에 푹 빠져있었다. 필화와 비교했을 때 태주가 더 악해져야 극의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한 박해준은 매 씬이 거듭될수록 더 치열하고 더 독하게 연기하며 악역 캐릭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아저씨' 신드롬을 일으킨 이정범 감독의 야심작

대한민국에 '아저씨'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정범 감독이 더 깊이 있고 진해진 이야기로 돌아왔다. 이정범 감독은 '아저씨', '우는 남자의 전작에서 알 수 있듯이 밀

비닥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 변화하는 이야기를 주로 그린다. '악질경찰'은 전작들과 유사한 설정으로 시작하지만, 주인공의 변화와 각성이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작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또 범죄 드라마의 틀에 사회에 대한 그의 시각을 담아 관객들에게도 오랜 여운을 남긴다. 이정범 감독은 "조필호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을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이번 영화가 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더욱 밀도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그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악질경찰'은 오는 20일 개봉한다.

'압도적 음원 최강자' 에픽하이의 귀환...차트 올킬



믿고 듣는 음원 강자 에픽하이가 국내 음원 차트를 깔끔하게 평정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에픽하이(Epik High)의 새 앨범 'sleepless in Seoul' 타이틀곡 '술이 달다 (feat. 크러쉬)'는 12일 오전 8시 기준 멜론을 비롯한 7개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씩씩 올렸다. 음원 공개 직후 단숨에 차트 최정상을 독식한 타이틀곡 '술이 달

다' 뿐만 아니라 '채백에', 'In Seoul (Feat. 신우정아)', 'No Different (Feat. YUNA)', '비가온대일도' 등 앨범 수록곡들도 최상위권에 포진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백스 실시간 차트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에픽하이의 곡으로 즐 세워져 있으며, 'Sleepless in Seoul'에 수록된 일곱 트랙 모두 TOP10에 진입시키는 등 압도적인 음원 파워를 과시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에픽하이는 음악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16년이나 된 그룹이라서 그런지, 이제는 앨범 나오는 것을 떠나 아예 눈 땀을 때 그저 하루 더 음악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차트나 결과가 중요

한 게 아니겠지만, 때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더 음악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에픽하이의 새 앨범 'sleepless in Seoul'은 악몽, 실연, 우울증 내일에 대한 고민 등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잠 못 드는 이들에게 바치는 7개의 노래로 구성됐다. 타이틀곡 '술이 달다 (LOVE DRUNK)(Feat. 크러쉬)'는 쓰디쓴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잠 못 이루 술을 찾고 술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에픽하이는 13일부터 독일 베를린 핀란드 헬싱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폴란드 바르샤바, 영국 런던을 잇는 '2019 유럽투어'에 돌입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음력 2월 7일)

<p>▶ 쥐 남자가 하는 일을 안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다. 자신이 뛰고 싶지만 모든 여건이 맞지 않고 아이들을 생각하니 막막하다. 자신을 갖고 북쪽 사람과 상의하면 풀릴 듯. 5, 7, 10월생 용기를 갖고 추진하면 길하다.</p>	<p>▶ 돼지 4, 5, 8, 10월생 직장에서는 순조로우나 가정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다. 매사에 결단력이 부족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주체가 없는 사람처럼 끌고만 있으니 중간에서 난처함을 당할 수. 7, 8, 10월생 자신의 판단이 필요할 때다.</p>	<p>▶ 원숭이 남들은 인고부라고 부러워하겠지만 만나면 다통이 너무 잦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숨겨둔 사람이 있다면 말어질 조짐이 보이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함이 좋을 듯. 돼지, 범띠와 상의하라.</p>
<p>▶ 사슴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 해가 된다.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대화로 풀어라. 2, 7, 11월생 친한 사람과 금전거래를 금함이 좋을 듯. 작은 일로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고 타산적이 된다. 7, 8, 10월생 추진하고 하는 일 서두르지 말라.</p>	<p>▶ 닭 동에서 뺏기고 서에서 분골이한다는 식으로 밖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안에서 화풀이하는 사람을 받아주자니 마음고생이 심하다. 7, 8, 10월생 가정에서 신경써야 할 때다. 자녀 탈선이 염려된다. 사랑만이 가정 지킬 수 있다.</p>	<p>▶ 물소 두 가지 일을 하려니 정신이 너무도 고달프다. 부부가 분담해서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한눈에 반했다고 해서 결혼 상대라고 착각을 한다면 실망이 크겠다.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다. 때를 기다리면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p>
<p>▶ 호랑이 살아가면서 고비가 여러 번 있게 마련이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4, 7, 9월생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마음뿐이다. 자신감이 없어 괴롭구나. 과감히 추진할 때 승리할 수 있겠다.</p>	<p>▶ 말 적은 투자로 소득이 많은 운이다.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하고, 자만심을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미련한 짓이다. 7, 8, 10월생 연인이나 배우자를 양보와 이해심으로 감싸주라.</p>	<p>▶ 개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다. 나와 남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옹이 다옹이 각양각색이다.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 단점만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해야 서로 원원하며 능률도 오른다.</p>
<p>▶ 토끼 사랑에 조건이 앞서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이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정을 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방해자가 생긴다. 7, 8, 10월생 신경은 이제 그만 켜라. 건강해야 사랑도 찾을 수 있겠다.</p>	<p>▶ 염소 쉽게 뜨거워지면 빨리 식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정이 들면 실망도 쉽게 느낄 수 있다. 일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2, 9, 10월생 서북쪽에서 도움 올 듯.</p>	<p>▶ 돼지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대 관계를 원활히 하라. 겸손한 자세가 요구된다. 젊은 나이에 살림이 느는 것만 생각하지 몸을 생각하지 않아 건강을 해친다. 7, 8, 10월생 남, 서쪽에서 유혹이 올 듯.</p>